

Bucharest 인구회의의 참석 보고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양 재 모

U.N.이 인구관계의 회의를 시작한 것은 1955년에 Rome에서 처음이었으며, 제2차로는 1965년에 유고슬라비아의 수도 벨그라드에서였다.

본인은 Rome에서 열린 첫번째 회의에는 참석하지 못했고 두번째 유고슬라비아에서 열린 회의때부터 참석했으나 이 때는 대부분 인구관계 학자들 또는 가족계획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모인 회의였으며 참석자수는 약 500명 정도였으며 그 중 한국인으로는 본인 외에 김연씨 뿐이었다.

루마니아의 수도 부카레스트에서 금년 여름에 개최된 회의는 9년만에 열리는 회의로서 전술한 회의들과는 상이하여 주로 국가 대표들이 모이는 인구관계 회의로서 범세계적으로는 처음 열리는 대대적인 회의였다.

본인은 원래 민간인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입국에 어려운 점이 있어 국가대표 13명중의 일원으로 참석하였다.

이 곳 회의에 참석한 국가대표는 약 1,000명이었으며 한편 같은 부카레스트 시내에서 소위 population tribune이라고 하는 주로 학자들만의 회의가 따로 개최되어서 이 곳에서 개최되는 국제 인구회의에 영향력을 주고자 하였는데 이들 약 2,000명의 학자를 합하여 총 3,000여명의 사람들이 12일간에 걸쳐 회의를 하였다.

U.N.이 국가대표들을 모아놓고 이와 같이 대규모의 인구총회를 열게된 연혁 경위 등을 설명하겠다. 1970년은 300~400만년되는 세계 인류역사상 유례없는 큰 변동을 가져온 시기이다. 1965년 유고의 벨그라드에서 열린 인구회의의에서만 해도 인구문제는 주로 인구학자들이 모여서 논의할 성질의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결과는 후진국에서 인구 성장이 너무도 급격한 경우에는 이로 말미암아 경제성장이 지연되어 경제개발계획에 차질이 오기 때문에 인구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이 깊이 인식되어 1966년에 몇몇 세계 정치지도자들에 의한 인구 선언문이 작성되었고 1968년에는 유엔트 유엔 사무총장이 인구선언을 세계에 공포하게 되었

다. 즉 1960년대 후반기에 와서는 인구문제가 경제개발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인간의 기본권리와도 관계가 있다는 정도로 중요시 되는 단계에 이르렀다.

그러나 1970년대에 와서는 인구문제가 인류 전체의 존속 여부를 위협할 정도로 세가지의 기본적인 문제와 심각한 관련을 가지게 되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즉 너무 급격한 변화가 와서 인류 역사에 불연속선을 갖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 × ×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데 가장 중요한 세가지는 물과 식량과 에너지인데 인구의 급격한 증가는 1970년대에 들어와서 인류역사에 불연속적인 현상을 초래하고 말았다. 즉 MIT group이 Rome club의 뒷받침을 받아 콤퓨터로서 인구증가와 자원과의 관계를 계산해 본 결과 현상태대로 나가면 약 25년 지나면 세계의 위기가 올 것이라는 발표를 한지 1년도 안되는 금년부터 혹은 작년년부터 이미 그 위기의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몇 가지 현상이라는 것이 세계의 식량생산이 중단되더라도 세계전체 인구가 70억일 먹을 수 있던 식량의 양이 작년 재작년의 흉년으로 인해 27일의 여유밖에 없는 것으로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문제, 그리고 바다에서의 어획량이 50년대에서 60년대까지 계속 증가하였던 것이 70년대에 들어와서 오히려 줄어드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작년부터 겪고 있는 에너지 파동 즉 석유문제 그리고 세계 삼림의 문제 또한 담수(fresh water) 공급이 떨어가는 문제 등에 벌써부터 당면하게 되니까 위기까지에 25년은 커녕 앞으로 10년도 견딜 수 있겠는가 하는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다.

이제까지의 오랜 경제역사에 있어서는 언제나 식량생산자가 그것을 팔기 위하여 고객을 찾아 다녔었는데 이제는 정반대로 식량 기타의 자원을 가진 사람이 고객들을 취하고 매매대상을 선택하는 권리를 행사하고 구매자는 저자세로 자원을 가진 나라에 굶질거리며 그들의 정치 노선까지도 지지하는 흉내라도 내야 부족한 자원을 구입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러한 예전과는 전연 다

른 현상이 세계 도처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니까 세계가 이 상태로 나가다가는 앞으로 10년이 넘지 않겠다는 우려가 앞서지 않을 수 없다.

참고로 세계 인구증가의 변동을 보면 세계가 처음으로 10억의 인구가 되기위하여 300만년이란 시간이 지나서 즉, 1850년에야 이루어 졌으며 그 후 총 인구가 20억이 된것이 1930년 이니까 즉 80년밖에 걸리지 않던 것이 그 후 30년이 지난 1960년에 30억이 되었고 그 후 15년 후인 1975년에 40억이 되었으며 현상태로 나가다가는 앞으로 1986년이 되면 즉 11년이 지나면 다시 50억으로 될 것이고 그 후 9년 후인 1995년이 되면 다시 10억이 증가하게 된다.

옛날에 300만년 걸려서 10억이 된것은 제외하더라도 90년 혹은 30년 걸리던 것이 이제는 10년 내외로 인구가 10억씩 늘어가게 되었지만 이제까지는 그저 식량문제는 10억에서 20억으로 인구가 늘면 10억이 먹을 것만 더 있으면 된다고 하는 간단한 생각을 했었다. 그러나 요즘 생활 수준이 향상된다는 것을 가산하여 생각하면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예를 들면 현재 미국 사람들은 세계 전체 에너지의 32%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인구가 2억이라면 세계전체 인구의 5%밖에 되지 않는다. 즉 세계인구의 5%인 미국인이 세계전체 에너지의 32%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후진국가 사람들이 그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 개개인에게 소모되는 에너지 소비량이 증가됨을 의미한다. 또한 2억의 미국인이 섭취하는 영양 총량을 가지고 현재 중국인이 섭취하고 있는 기준으로 먹인다면 15억의 인구를 먹여 살릴수 있는 것으로 계산한다.

모든 나라가 다 미국처럼 높은 수준의 생활을 하고자 원하고 있으며 그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인구가 감절로 증가하였다 하여 식량도 감절로 증산하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국 수준을 따라가려면 중국인이 먹는 것에 7배를 가산해야 하니까 인구증가가 2배라면 결국 소비량은 $2 \times 7 = 14$ 배로 증가하게 된다.

이와 같은 계산을 해 보니까 현재 세계가 가지고 있는 담수와 에너지 자원 그리고 식량 생산이 앞으로 계속할 인구증가를 평화롭게 지탱할 수 있겠는가를 생각할 때에 어두운 전망을 가지게 되었다. 이번 U.N. 에서 인구회의를 할 때는 각국으로 하여금 미리 자기나라의 인구현황을 분석하고 앞으로 취할 대책 즉 plan of action 을 준비하게 하였고 지역적으로는(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방콕에 있는 ECAFE 지역 사무실에 모여) 지역별 plan of action 을 만들었고 그것을 U.N. 사무국에서 모

두 종합하여 하나의 plan of action 으로 만들어서 회의에 내 놓았다.

이와 같이 인류의 앞으로의 전망에 관계되고 세계평화 및 환경문제 혹은 식량문제등 모든 것을 총 망라한 진지한 노력을 들여 준비한 회의였기에 앞으로 이 지구가 적어도 이런 정도의 action 은 가져야겠다는 마음이 짐으로 모든 사람들이 참석하였으나 그 결과는 대단히 실망을 가지고 돌아왔다.

세계경제를 살펴보면, 1950년에 GNP 가 1950에 약 1조억 dollar 이던 것이 현재에는 약 3조억 달러로 증가되었다. 그러니까 세계 전체로 보면 현재 한 사람에 연 \$803의 GNP 를 가지고 있는 셈이다.

우리 나라와 비교하여 보면 현재의 국민소득이 \$400 이므로 세계평균의 약 반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출산력에 대한 수준은 세계의 평균수준보다 다소 앞서 있는 상태이다. 즉 현재 세계 전체의 인구성장율을 2.0%로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2%보다 조금 하회하므로 출산력에 있어서는 세계 평균보다 조금 앞서 있다고 볼 수 있다.

세계 전체 인구를 선진국과 후진국으로 나누어서 보면 세계인구의 1/3에 해당하는 선진국의 인구성장율은 0.9%이고 전세계 인구의 2/3에 해당하는 후진국의 인구성장율은 2.4% 정도로서 이로 미루어 보아 우리나라는 후진국의 범주를 조금 벗어나서 중진국으로 되었고 세계전체 평균보다 다소 앞서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 고로 현재의 우리나라 경제수준을 좀더 높여서 출산력이 세계수준을 조금 앞서 있는 것과 보조를 같이 해야 할 필요를 느낀다.

참고로 이번 U.N 인구회의를 개최한 루마니아에 관해서 소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인구문제에 참고가 되고자 한다.

루마니아의 인구는 2,000만으로 지난 8월 23일 독립 30주년 기념식을 거행하였다. 이번 독립 30주년을 기념하여 세가지 큰 행사를 진행시켰다. 즉 이번 UN 인구회를 개최한 것이 그 하나이고 둘째로 독립기념 퍼레이드를 자기네 연맹국의 수상들을 초청하여 거대하게 거행하였고 셋째로 산업박람회를 개최한 것이다.

루마니아의 인구는 2,000만이지만 땅이 워낙 넓기 때문에 인구밀도는 km^2 당 89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산이 적고 광활하고 비옥한 평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농토가 충분한 뿐 아니라 유럽에서는 소련 다음으로 석유를 많이 생산하는 좋은 지하자원을 가지고 30년간 정치적으로도 안정된 상태에서 경제발전을 이룩하기에 좋은 여건을 가져왔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소득이 연

1,000불 정도로 우리보다 높다.

그 나라의 출산율로서 대단히 흥미있는 것은 1963년 survey 한 결과에 의하면 그 당시 28%의 기혼 부부가 애기를 하나도 갖지 않은 상태에 있었고 이상적인 자녀수에 관해 물었을 때 부카레스트 시민들은 1.3명이었다. 우리 나라에서 지금으로부터 10년전에 이상적 자녀수가 4.2명이던 것이 요사이 겨우 3.6명으로 내린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있다. 이들을 세분하면 집단농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이상적 자녀수는 1.8명, 교육수준이 높은 부인들은 평균 0.7명으로 대답하였다 한다. 이렇게 애기를 덜 가지려고 하니가 1966년의 조출생율이 14.3(인구 1000당) 밖에 되지 않았다. 그 결과 루마니아 정부는 1966년에 법령을 개정하여 이제까지 자유롭게 인공임신중절을 하게 하던 것을 특수한 경우 이외에는 못하게 하는 동시에 애기를 많이 낳을수록 출산수당을 더 많이 주어 다산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정책으로 바꾸었다. 그 결과 그 다음해인 1967년에 출생율은 급격히 증가하여 1966년 것의 거의 두배인 27.3으로 되었으나 그 다음 해부터는 출생율이 차차 떨어지기 시작하여 현재는 다시 20 이하선으로 내려갔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법으로 다산을 장려해도 국민들은 애기를 많이 낳지 않으려는 생각이 짙기 때문에 인공유산 금지한 첫 해에는 출산율이 증가되었으나 그 다음 부터는 국민 각자가 딴 대비책을 강구해서라도 애기를 덜 가짐으로써 출산율이 내려갔다는 것을 뜻한다. 이와 같은 상태의 나라에서 인구회의를 개최한데에 관심을 갖고 회의에 참석했으며 U.N 사무국에서 준비한 plan of action은 제 4분과회의에서 논의되었고 이 분과에는 본인과 이종진씨 둘이서 주로 참여했다.

이 plan of action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현재 40억에 육박한 세계인구는 매년 2%의 성장율로 증가하고 있는데 그것은 선진국에서 0.9% 씩, 후진국에서는 2.4% 씩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과, 이대로 가면 기원 2,000년에는 세계인구가 65억으로 될것으로 추계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앞으로 세계 여러 나라가 협력함으로써 후진국의 인구성장율을 1985년까지에 2.0%로 떨어뜨림으로써(선진국 것은 현재의 0.9%가 그대로 계속하는 것으로 보고) 세계 전체의 인구 증가율이 1.7%로 되게 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본인이 이번 회의에서 실망을 느낀 것은 세계 여러나라 대표들의 태도가 이러한 인구학적인 사실을 수긍하고 모두 협력함으로써 인구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노력을 표시하지 않고 오히려 이 회의를 정치외교의 무대로 삼고 대표들의 발언과 태도는 본래의 목적과는 이탈된

것 같은 인상을 준 것이다. 우선 중공대표의 예를 들어 보면 중공은 1963년부터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강력한 인구조절 정책을 가지고 계획생육(計劃生育)이라는 이름으로 적극적인 가족계획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대개 추측으로는 중공인구의 35%가 가족계획을 실천하고 있다고 본다. 물론 선진국 수준 60%에 미치지 못하는 못하지만 현재 세계전체로 평균 가족계획 실천율이 31%인 것과 비교하면 중공은 오히려 세계수준보다 높은 가족계획 실천율을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고 출생율도 많이 떨어져서 세계 여러나라 사람들이 중공의 인구조절책의 성공에 많은 찬사를 보내왔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의에 참석한 중공대표는 다른나라 대표가 중공의 인구조절책 성공이라든지 가족계획의 성공여부를 인용 언급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금지시켰다. 그리고 인류에 있어서 인구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주장하며 토목동의 말을 인용하여, “인간의 능력은 무한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의 장래도 밝은 것이며 만약 인구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인구 자체가 많아서 인구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그 것은 순전히 자본주의, 제국주의, 식민주의 그리고 헤게모니주의 등 몇가지를 나열하면서 이런 것 때문에 인구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두 강대국 특히 소련등이 전쟁준비를 위한 경쟁 때문에 인구문제가 생긴다고 주장하고, 자기네 나라가 1950년에 인구가 5억 밖에 되지 않았지만은 그 때는 기아와 실업자 투성이었지마는 현재에는 8억 5천만이나 되는 인구를 가지고도 실업자나 굶어 죽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케변을 늘어 놓고 정치선전을 일삼았다. 즉 자기네들이 회의의 주도권을 잡고 아프리카나 기타 중소국가들로 하여금 자기네 노선을 지지해서 소련과 미국을 공격하는데 이용하기 위한 발언만을 계속하였다.

또 한가지 예를 든다면 인도의 경우이다. 인도는 1952년부터 국가정책으로 가족계획을 채택한 나라이고 현재도 가족계획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서는 plan of action에다가 인구성장율 저하의 목표설정에 반대한 것이다. 즉 그 이유로는 첫째 인구문제는 부(富)에 대한 분배를 잘 해야 해결된다는 주장이고 둘째는 자기네 경험에 비추어 앞으로 10년 동안 plan of action에서 제시한 정도로 인구증가율을 떨어뜨릴 수 없으므로 도달할 수 없는 목표로 세우는데 반대한다는 등이다. 그 다음으로 바티칸이 한 나라로서 홀리세(HolySee)란 이름으로 참석하였는데 이들 역시 가족계획에 반대하였다는 점이다.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의 여러나라 특히 브라질 같은 광대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는 가톨릭 국가이기 때문에 반대했고, 알

젠틴은 이웃의 브라질 인구가 너무 많아지는 데 대한 위협을 느끼고 자기네 인구를 증가시켜야 한다는 속셈 때문에 인구정책을 세우는데 너무 적극적으로 인구조절을 하는 것을 반대하였다.

× × ×

이와 같이 각 나라의 대표들이 전부 자기나라의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너무 치중한 결과 처음에 참가할 때 기대했던 세계가 모두 협력하여 인구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하여 어떤 공통된 정책과 진로를 얻지 못하였음을 심히 유감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이 회의의 성과라면 우선 첫째 인구문제가 회의석상에서는 정치적인 발언으로 논란이 많았으나 인구문제 자체는 종래의 인구증가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자원의 문제, 경제발전, 환경의 오염문제, 인류 생태학적 문제 등 여러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심각하게 느꼈다는 것이다.

둘째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사회경제 발전과 병행하여 인구문제를 해결하도

록 노력하여야 하며 인구문제를 사회문제와 분리시켜 단독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까지는 plan of action에 명료하게 제시되어 있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하게 된 점이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의 action도 이제까지 해오던 가족계획문제 하나만 가지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의무교육을 현재의 6년에서 앞으로는 9년으로 즉 적어도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을 연장시켜야 한다든지 또 내년은 UN이 정한 여성의 해인데 여성들의 인권을 보다 많이 신장시키고 동시에 여성들이 보다 많이 직장에 나오게 하여 그 취업율을 높이는 등의 노력이 시도되어야 저출산율을 유지하게 되고, 또 아울러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빨리 촉진시킴으로써 보다 적은 자녀수를 가지려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하고 또 대통령 직속 또는 국무총리 직속의 인구정책위원회를 설치하여 범국가적 인구정책을 세우고 이를 강력히 추진하도록 해야 함을 느끼게 되었다.